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입주 스타트업 6팀 선정

최대 1년간 사무공간·클라우드 등 지원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지원센터 '마루 180'의 2020년 상반기 입주 스타트업 6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주 스타트업은 모집 시 분야에 제한 없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기업 중 직원 수 3~8인을 대상으로 했다.

상반기 입주사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입주 스타트업은 ▲유학 플랫폼 유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반찬 직영판매 플랫폼 슈퍼키친의 '슈퍼메이커스' ▲인공지능 활용 개발자 시간제 아웃소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다터' ▲중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물류대행 서비스 솔루션 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네트워크 형태로 티켓을 전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티켓팅 플랫폼 '티켓' ▲인플루언서 영향력 측정 제공 서비스인 피처링 스코어를 운영하는 '피처링' 등 6팀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이달부터 최대 1년간 아산나눔재단의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의 사무공간을 지정받고 수면실·휴게실·회의실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구글·AWS·네이버 등으로부터 클라우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출장 시 구글의 전 세계 테크 허브 코워킹 스페이스

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출장이나 미팅 등에 필요할 경우 소카(SOCAR)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해외 콘퍼런스·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입주사나 졸업 1년 이내의 스타트업이 마루180 내에서 홍보 마케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때 500만원 상당의 실비가 제공된다. 스타트업이 회계·세무·법무 등에서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자비스', '로톡(Lawtalk)' 등 전문 서비스와 연계한다. 팀원들을 위한 건강검진 및 복지물 등 임직원 복리후생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입주 및 졸업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공치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기지 수첩

김재웅 (산업부)

'위풍당당'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전하러 청와대 본관으로 걸어들어오는 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마이크를 잡고 지난해 정부 성과를 나열하며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회복세, 노동자 삶의 질 제고, 분배지표 개선, 안전성 향상, 혁신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작 이윤 추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힘썩던 기업들에는 별다른고 마음을 표하지 않았다. 산업 역군들이 비로소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독립 선언을 자축하던 그 때, 갑자기 일본에 손을 내밀던 정부를 보며 느꼈을 허무함에도 '유감' 조차 없었다. 청년들 마음도 어루만지지 못했다. 지난해 청년들은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하향 취업을 해야만 했고, 부동산과 소득 양극화, 전세가 상승과 대출 제한으로 서울 시내에

사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박탈감도 컸다. 정의의 아이군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들을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동생과 함께 수십억원 부동산을 구입해 불과 1년여만에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봤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행정관들이 투기 지역에 집을 몇채씩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문 대통령은 일부 통계만 취사선택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다. 신년사를 들던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지 않아도 짐작할만 했다.

정부가 아예 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름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지원을 약속했고,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던 걸 성과라고 치켜세워 주기는 창피할 노릇이다.

군이 공치사를 해야했다면 책임도 같이 지길 바란다. 여전히 반기업 정서, 막대한 법인세, 불필요한 규제 등 성장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많다. 기업도 국민이다. 진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juk@metroseoul.co.kr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디지털 휴먼뱅크로 대전환"

2020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은행은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2020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대훈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중심 디지털 휴먼뱅크'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이 행장은 "올 한해는 농협은행이 고객중심 디지털 휴먼뱅크로 대전환하는 해"라며 "임직원 모두가 고객이 원하는 가치 그 이상을 실현하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 고객과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대표은행 구현 ▲안정적 수익구조 정착 ▲좁은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각 부문별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2020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에서 임직원들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농협은행

오늘의 운세 1월 8일 (음 12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 48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진다. 60년생 가족도 자주 만나야 돈독해 진다. 72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니 소화제를 준비. 84년생 이성문제로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 소** 37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힘껏 저어라. 49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61년생 작은 것에 보다는 신용을 우선시. 73년생 파란색 숫자 9가 행운을. 85년생 갈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 호랑이** 38년생 욕심을 너무 부리니 가족도 싫어한다. 50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슬프다. 62년생 우물을 발견했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 74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86년생 허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다.
- 토끼** 39년생 그물도 치지 않고 고기 잡하기를 기다린다. 51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63년생 깊은 밤은 찬란한 새벽을 위한 준비. 75년생 고맙다는 말이 듣기 좋다. 87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격국에 망신살을 부른다.
- 말** 40년생 능력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라. 52년생 큰 바다로 나아가는 계기가 온다. 64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꾸준한 노력은 필요하다. 76년생 투기와 투자를 혼동하지 마라. 88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부여는 상황을 왜곡 시킨다.
- 뱀** 41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53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65년생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도전. 77년생 원행을 금하고 건강을 살피라. 89년생 실속은 없었으나 보람된 하루이다.

- 말** 42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마음이 훌쩍. 54년생 깔끔한 포기가 때로는 득이 된다. 66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78년생 상대의 실수를 포용하라. 90년생 부지런히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자.
- 양** 43년생 무리한 상행이 허리의 통증을 유발. 55년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방심으로 잃게 된다. 67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하니 몸시 고단하다. 79년생 칭찬에 부화뇌동 하지마라. 9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 원숭이** 44년생 팔짱 끼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56년생 지식과 능력으로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68년생 서남쪽에서 귀인이 도움을 준다. 80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92년생 초지일관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
- 닭** 45년생 가시가 없다면 장미가 아니다. 57년생 지나친 자존심으로 적을 만든다. 69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다. 81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93년생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 개** 46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58년생 일의 지척이 내려도 경계 망동하지 마라. 70년생 한여름에 솜옷이 생각나니 주책. 82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떠나도 좋다. 94년생 평소의 신용으로 귀한 정보를 얻는다.
- 돼지** 47년생 도와주는 상대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59년생 불평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71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83년생 배우자와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않도록. 95년생 분수를 지키고 자제하는 것이.



김상희의 四季 골드미스

흔랍죽 혼술족이 대세라는 현대는 가족 간의 정(情)의 질서가 희박해진 것만은 사실인듯싶다. 벌써 몇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가족의 개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빠지고 바로 직계 부모와 자식까지만 가족이라고 본다는 통계조사를 본 적이 있다. 요즘 '1982년생 000'이란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다고 한다. 환갑이 넘은 월광사 신도 한 분이 그 영화에 대해 말을 한다. "원장님! 저는 딸이 보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세상에 팔십 년생이면 저보다도 한 이십 년이 아래인데 어쩔 제 얘기랑 하나도 안 달라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시대인 줄 알았는데 말이예요" 아마도 영화의 주인공인 80년생 여성의 어머니가 최소한 50년대 출생자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아들 선호 사상이 팽배한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어머니가 겪어온 길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과 역할은 증가해가지만, 가정을 가진 주부의 역할과 워킹맘의 조화에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놓았다. 자의식 충만한 팔십 년생은 발목 잡힌 여성으로서의 심한 모순 감에 빠졌을 것이다. 능력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발전 욕구와 전통적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심한 모순과 부조리를 겪는 현대 여성의 이야기라고 전해 들었다. 멀리에서는 여자에게 관운이 강할 경우 그 관운이 남편에게 전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운이 좋은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는 것으로 자신의 관운이 대체된다고 본다. 전통시대에는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것보다 남편 잘 만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현대는 여성의 사회활동도 많고 직업인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골드 미스들이 많은 것이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8					
	9			5	7			
	6		2	5		3		
8				6				
5	1	6		7		8		
	3		4				1	
					3	2		
2		1	3					
	4		5	6				

								7
		3	2					5
	8			3				1
	1			5				
			4		8	7	3	
		5	2					9
				4				
	2	1		3			8	4
7	9				2			6

스도쿠 정답

6	8	1	9	5	2	4	7	3
4	9	7	6	4	1	8	5	2
5	2	4	7	8	1	9	6	3
1	6	2	8	7	5	3	4	9
8	7	4	4	6	9	2	1	5
4	5	9	2	1	4	7	6	8
7	4	8	5	2	6	9	4	1
2	4	5	1	9	7	6	8	4
9	1	6	4	8	4	5	2	7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5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3호